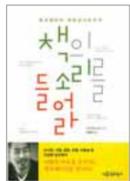


병원·미용실·은행·스포츠 매장 ...

북큐레이션 다양한 공간 이야기



책의 소리를 들어라

하바 요시타카 지음

최근 출판계와 서점계의 화두는 '북큐레이션'이다. 특정한 주제에 맞춰 책을 선별해 독자에게 제안하는 작업을 말한다. 미술관과 박물관의 영역으로만 알고 있던 큐레이션이 출판과 서점의 영역에도 도입된 것이다. 최근 2~3년 사이 급속히 늘어난 작은 서점 열풍도 북큐레이션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

일본 방송기자 출신 논픽션 작가인 하바 요시타카는 북큐레이터다. 일명 '책장 편집자'다. 그가 펴낸 '책의 소리를 들어라'는 북큐레이션을 적용한 다양한 공간의 책 이야기와 노하우를 담았다.

북큐레이터는 단순히 책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방대한 책 속에서 의미있는 주제, 독자적인 컨셉에 따라 책을 선정하는 '북 컬렉션의 힘'과 책들의 순서를 바꾸어 연결할 줄 아는 '편집의 힘' 그리고 책장 전체를 통해 무언가를 '표현하는 힘'이 모두 필요한 종합적인 작업이다.

디자인 능력이나 예술적 감성은 필수다. 저자는 일본에서 최초로 북큐레이터(일본에서는 북 디렉터라 함)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주목을 받았다. 그의 작업 공간은 서점과 도서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병원, 미용실, 은행, 스포츠 매장, 관광 상품점, 대형 쇼핑몰과 같이 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공간에도 북큐레이션을 한다.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가 북큐레이션을 한 책 공간이 있다. 현대카드 트레이드 라이브리기가 그곳이다. 다양한 공간에 책장을 만들고 책을 큐레이션해 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 하는 '하바'라는 회사도 차렸다.

책에는 저자가 직접 북큐레이션한 다양한 공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저자가 작업한 센리재활병원, 시라미미용실, 스루가은행 등 도서관과 츠타야 도쿄 롯폰기, 북 246 등의 작업 과정이 담겨 있다.

4장과 7장에서는 북큐레이터가 되기까지 하바의 어린 시절 및 청년기의 삶과 전문회사를 창업해 진행한 작업이 수록되었다. 마지막 9장에는 소니와 함께 진행한 전자책의 큐레이션을 소개한다.

〈책의학과〉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제 강점기 공산주의 여성 혁명가

주세죽·허정숙·고명자 생애 그려



세 여자

조선희 지음

소설은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됐다. 1920년대로 추정되는 식민지 조선, 정계천 개울물에서 단발을 한 세 여자가 물놀이를 하는 사진. 1990년 냉전시대의 마진표를 찍으며 당시에 한국과 소련의 수교가 이루어진 그 다음이다. 사진은 박헌영과 주세죽의 딸이며 소련의 모이세예프 무용학교 교수인 비비안나 박이 서울에 돌아왔을 때, 들고 온 여러 장 가운데 하나였다.

박헌영, 임원근, 김단야- 각각의 무게감은 다를지언정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한국 공산주의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들이다. 반면 이들의 동지이자 파트

너였던 주세죽, 허정숙, 고명자 이 여성들은 왜 한번도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을까.

'씨네21' 편집장과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역임했던 조선희 씨의 '세 여자'는 우리가 몰랐던 세 명의 여성 혁명가, 그들의 존재를 담담히 보여준다. 또한 소설은 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주변 남성들의 인생과 함께 1920년대에서 1950년대에 걸쳐 한국 공산주의 운동을 폭넓게 다룬다. 작가가 스스로 여자가 주인공이지만 역사가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작품 속 40년의 시간에서 가장 에너지를 쏟은 부분은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이다. 저자는 지금의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딜레마가 근본적으로 분단과 전쟁에서 비롯됐고 지금도 해방공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그것은 독자들이 우리 사회 근원을 들여다보고 해방공간의 딜레마를 넘어서기를 기대하는 집필 의도와도 맞닿아 있다. 〈한겨레출판〉각 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신을 성찰하고 어려운 순간 견디게 하는 힘

별별명언

김동훈 지음



"필연과 당위의 모호한 상태를 예외라는 변명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때 그 행위는 폭력이 된다. 예술만이라도, 기술만이라도 예외 상태가 있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물리법칙과 도덕법칙은 하나가 되고, 혼돈의 세계는 질서를 잡는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에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가 오라클을 만날 때 마주친 명언이다. 호라티우스의 "카르페 디엠"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외친 선언이었다. 이처럼 명언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마주치는 고전들이다.

100년, 1000년을 살아남은 명품 고전에는 현대인의 영혼을 울리는 감동이 있다. 명언도 마찬가지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 "시작이 반이다" 같은 명언들이 오랫동안 잊히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스며있는 이유는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불후의 고전작품처럼 명언 또한 오랜 생명력을 갖는다.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와 깊이를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 명언의 탄생은 서양 사상사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양 고전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시공을 초월해 올



"카르페 디엠"은 현재를 즐기라는 뜻이다. 저마다의 선택에 따라 장미꽃 봉오리는 다르게 모아질 수 있다. 〈민음사 제공〉

림을 주는 명언들이 적지 않다. 다수의 서양 고전을 번역하고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서양사 고전 원강을 지도하고 있는 김동훈 씨가 펴낸 '별별명언'은 서양 고전을 관통하는 21개의 핵심 사유가 담겨 있다.

책은 플라톤과 세네카에서 라캉과 바디우까지 명언의 끈질긴 생명력 속에 담긴 지혜를 펼쳐낸다. 대부분 명언들이 그리스와 로마시대 사상가들의 텍스트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인문학 핵심 사유를 접할 수 있다.

"말 빠진 독"에서는 플라톤의 욕망 이론을, "늑대가

나타났다"에서는 아수성에 대한 들뢰즈의 긍정을 읽을 수 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라"는 세네카의 명언에는 라캉의 욕망이론을 만나게 된다.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돼 있다. '성숙', '함께', '생각', '새로움'이라는 키워드로 집약되는 명언은 우리 삶을 구성하고 지지하는 조건들이다. 저자는 "인간 목숨의 네 가지 원리"라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네 원리는 인간 열개를 형성하는 근간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연계한 명언에는 의외의 뜻이 숨어 있기도 하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흔히 "주제 파악 좀 하라"는 의미로 유통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느 날 문득 괴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는가? 황금만능주의 사회에서 경쟁과 성과만을 우선시한 나머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괴물.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두 얼굴을 지닌 괴물인가? 아니면 운유한 피조물인가라고.

또한 이슬 우화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는 권위에 대한 뜻이 숨어 있다. 헤르메스가 착한 나무꾼에게 금도끼와 은도끼를 건넨 것은 "금에 해당하는 권력, 은에 대한 권력"까지 준 것이다. 고대에 도끼는 권위를 대변하는 '권표'였다.

"단 한번의 선택으로 누구는 있는 도끼마저 잃게 됐다. 또 그런 도끼질이 지금도 계속된다. 그러나 겸손히 빈손으로 나아가 솟아오르는 도끼가 나의 도끼인지부터 살펴야, 잃었을 때 아픈 줄 아는 마음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자.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직하게 말하자."

저자는 "인간이 만들어 낸 언어가 쓸모 있을 때, 그 언어는 장수한다"며 "명언은 만든 사람도 예기치 못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다수에 의해 전유되어 질긴 목숨이 된다"고 말했다. 〈민음사·1만5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기후에 대한 인간의 통제권 시대순 서술



인류는 어떻게...

윌리엄 F 러디먼 지음

2000년대 들어 가장 첨예한 환경문제로 대두된 것 중 하나가 기후문제다. 인류의 생존문제와 직결될 만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지구 온난화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간 활동 가운데 무엇이 기온 상승을 야기했을까? 또한 그로 인한 문제는 무엇일까?

자연과 인간, 그리고 기후 변화를 다면적으로 분석한 책이 출간됐다. 고생물학자이자 버지니아 대학교 명예교수인 윌리엄 F. 러디먼이 펴낸 '인류는 어떻게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는 기후에 대한 인간의 통제권을 시대 순으로 들여다본다.

기후 변화는 방대한 시기에 걸쳐 철저히 자연의 통제 하에 있었다. 저자는 8000년 이전까지는 자연이 통제력을 쥐고 있었다고 본다.

저자는 바다가 이산화탄소 초과분을 흡수해가면 지구 온도는 자연적인 수준에 가깝게 냉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에코리브르〉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산 개미 78종 수록 ... 우리나라 첫 도감



한국 개미

동민수 지음

개미는 우리에게 익숙한 생물이다. 곳곳에서 보일 뿐 아니라 사회성을 띤 곤충이라 교과서에도 등장한다. 개미를 소재로 한 동화나 에세이, 소설도 적지 않다. 개미 군체에는 여왕개미가 있고 일개미와 수개미, 병정개미 등 계급이 있다.

강원대 곤충분류학 연구실에서 개미를 연구하는 동민수 씨가 펴낸 '한국 개

미'는 우리나라 개미를 소개하는 첫 도감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기록된 개미는 172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46종이 보고됐다. 그 가운데 분류학적으로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종을 제외한 78종이 포함돼 있다. 또한 개미와 연관된 동물 12종도 수록돼 있다.

각 종별로 도감 파트에서는 일개미와 여왕개미로 나는 뒤 표본사진으로 형태를 소개하고 생태 사진을 곁들였다. 종에 따라 개성 있는 생김새, 흥미로운 생태 이야기가 가득하다. 책 뒤편에는 수록한 종의 여왕개미와 일개미 사진을 가지런히 배열해 궁금한 종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과생태〉2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 신축건물 설계시공 | 상가인테리어 | 조립식건물 | 징크시공 | 케뮤시공 | 판넬시공 | 렉산시공 | 데크시공 | 싱크대 | 샷시 | 실내인테리어 |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